

## 국내선 항공권 구입일 변경

10월 31일부로 국내선 항공권을 사야하는 시점이 탑승일 기준에서 예약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한국항공진흥협회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부도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권예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10월 2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10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약시점이 탑승 10일전에는 예약후 4일이내, 탑승 9~5일 이전에는 3일 이내, 탑승 4~2일 이전에는 2일 이내, 탑승 1일 이전과 당일에는 탑승 60분전에 항공권을 구입해야한다.

이 개선안을 이행하면서 제한된 공급좌석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실수요자 이용을 적극 보장하며 예약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시아나, 브뤼셀 취항으로 유럽운항 개시

아시아나항공이 브뤼셀 자벤펀공항에서 서울-브뤼셀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유럽지역에서도

대한항공과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브뤼셀, 비엔나 노선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등 2차례에 걸쳐 여객기를 왕복 운항하게 된다. 이번 아시아나의 취항으로 유럽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서울-파리 등 8개를 포함 총 9개 노선이 개설돼 주 24편 왕복 운항하게 되며 양 항공사간 유럽왕래 고객유치 및 서비스경쟁이 본격화하게 됐다.

## 韓-加 항공노선 12월부터 이원화

대한항공의 캐나다행 정기노선이 12월부터 이원화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최근 서울에서 쌍무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항공노선의 이원화에 합의, 현재 서울에서 밴쿠버를 거쳐 토론토로 가던 것을 다음달부터 서울-밴쿠버, 서울-토론토 노선으로 나눠 운항기로 했다.

이번 캐나다 노선의 이원화에 따라 서울-토론토간을 여행하는 승객들은 밴쿠버를 거치지 않으며 이로써 비행시간을 한 시간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됐지만 토론토행 항공편이 주 3편에서, 오히려 주 1편으로 줄어들어 항공편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 국내 7개은행, 항공기 4대 리스지원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7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내년초 대한항공이 도입하는 MD-83기동 항공기 4대에 대한 리스자금 2억 5천3백만달러를 지원한다.

10월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은과 외환, 조흥, 한일, 중소기업, 상업, 장기신용, 신한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만으로 구성된 차관추진단이 미국수출입은행 보증부 리스조건을 제시한 시티, 뉴욕, 케미칼은행등 유수의 외국계 은행들을 제치고 대한항공에 금융리스를 제공하게 됐다.

대한항공이 국내 은행들만으로 구성된 차관단을 리스자금 제공자로 선정한 것은 외국계 은행들에 비해 리스자금 차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데다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산은이 밝혔다. 과거에도 한국은행들만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리스자금 제공자로 선정된 적은 있으나 대부분 비행기 1-2대 규모에 그쳤었다.

## 영종신공항 6개시설 민자유치

영종 신공항 시설 가운데 화물터미널 등 6개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화물터미널, 항공기 정비시설(적납고), 기내식 시설,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급유시설, 열병합발전소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기로 재정경제원과 협의했다. 이로써 신공항 시설 중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신공항 고속도로를 포함해 모두 7개 사업으로 늘어났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화물터미널, 항공기 정비시설, 기내식시설은 100%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신공항건설공단, 공항공단 등 공공부문과 민간업체가 동시참여하는 제3섹터(민관합동개발)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들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후 단계적으로 착공, 오는 99년까지 모두 완공기로 했다.

## 김해공항 보수계획 확정

국제선 청사 침하와 벽면 및 활주로 균열로 항공기운항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드러난 김해공항의 보수계획이 확정됐다.

한국공항공단 부산지사는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진단 용역결과 청사 양쪽끝과 가운데 부분의 수평도가 최고 47cm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청사의 전면 신축방침을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에 이를 건의했다.

공항공단은 연약지반의 불균등 침하로 인한 청사의 기울어짐 현상이 지난 84년이후 특별히 진진된 것이 없어 청사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아시아게임을 앞두고 국제적인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제주공항 여객처리 '세계 88위'

제주국제공항의 여객처리 능력이 지난해 세계 100대 국제공항 가운데 88위, 아시아에서 17위, 국내에서는 2위를 각각 차지했다. 국제공항협회(ACI)가 발표한 국제항공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제주공항의 여객처리 실적

은 784만6842명으로 세계 100대 공항중 88위의 실적을 기록했고 아시아권에서는 1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3대 국제공항중 김포공항은 2733만3241명을 처리, 세계 국제공항중 14위를 나타냈으며 김해공항은 767만7126명을 처리해 세계 공항중 94위를 차지, 국내 3개 국제공항이 모두 세계 100대 공항에 포함됐다.

## 외국항공사, 국내 판촉 공세 강화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외국항공사들이 파격적인 항공료 할인, 마일리지서비스, 기내 통신서비스 등을 확대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판촉공세에 나서고 있다.

호주의 콰타스항공은 이미 11월 한달간 매주 화.목요일 출발편에 한해 서울-시드니노선의 항공료를 75% 할인해 판매했다.

콰타스항공은 이 기간중 서울-시드니 왕복항공권을 파격적인 할인가격인 57만원선에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와함께 주 3회인 이 노선의 운항횟수도 11월 14일부터 주 4회로 늘려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항공과 캐세이퍼시픽항공, 싱가포르항공은 3사가 공동으로 상용고객 우대제도인

'패키지프로그램'을 마련, 이들 3개 항공사를 포함해 영국항공, 스위스항공 등 9개 항공사를 이용하거나 하얏트, 힐튼 등 6개 체인 호텔에 투숙할때마다 마일리지보너스를 적용해 누적거리 4만마다 무료탑승권을 제공하고 있다.

캐세이퍼시픽항공은 이와는 별도로 회원제인 마르코폴로클럽을 운영, 호텔, 렌터카, 면세점 등에서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달부터 B747기종에 전화와 팩시밀리를 설치하는 등 기내 통신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항공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서울-피지노선을 뉴질랜드-오클랜드까지 연결, 서울-오클랜드 항공편을 주5회로 늘리고 자국내 호텔, 면세점 등과 연계한 마일리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델타항공, 필리핀항공 등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다른 외국항공사들도 공동으로 마일리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비수기활인에 나서는데 국내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사고보상한도 철폐 12개 항공사 서명

일본항공을 포함한 12개 항공

사들은 지난 10월 31일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연차총회에서 비행기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한도를 철폐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현재 미국으로 여행하거나 미국내에 머물다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승객들의 경우 증명된 피해에 대해 보상한도가 한사람당 7만5천달러까지이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2만5천~7만5천달러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새로운 협정은 이같은 보상한도를 철폐하는 것으로 빈번한 피해보상소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IATA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상한도에 관한 협정이 지난 55년 이래 한번도 수정되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이 어렵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피에로 지노이트 IATA회장은 IATA 이 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전체 2백34개 회원항공사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항공사가 이 협정에 서명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번 보상한도 철폐협정에 서명한 12개 항공사는 캐나다항공·캐나다국제항공·오스트리아항공·네덜란드의 KLM·스칸디나비아항공·스위스항공·모리셔스항공·남아프리카항공·

이집트항공·사우디아라비아항공·니카라과 TACA국제항공·일본항공 등이다.

## IATA, 세계항공사 올 수익 57억불 전망

올해 세계 항공사들의 수익이 총 57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밝혔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피에르 지노이트 사무총장은 23개 회원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한 IATA 제 51회 연차총회 개막연설에서 항공업계는 4년간 손실을 기록한후 지난 94년 18억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올해는 57억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항공업체들의 수익은 항공사들이 지난 90년~93년까지 15만명의 고용인원을 감소시키고 기내식 조달, 회계, 정비 등의 기능을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등 경비 절감조치를 실시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제항공편 이용자는 3억2천8백만명으로 8% 늘어났으며 국내선 항공편 이용자는 7억3천3백만명으로 6.4% 증가하여 항공교통 이용객이 늘어난 것도 항공업계의 경기회복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 전일본항공등 2사 경상이익 증가

간사이공항의 개항에 따른 노선증가로 JAL과 ANA는 국제선이 순조롭게 증가했다.

JAL은 2년 연속, ANA는 3년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JAS도 간사이 발착의 지방노선 신장으로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비 86.7% 증가한 34억엔으로 2년 연속 흑자가 되었다. ANA는 국내·국제 여객편이 순조로웠는데 국제화물의 높은 신장으로 4년만에 이익이 증가했으나 반대로 JAL은 태평양선의 화물이 침체와 보상금 등의 영업의 수익이 전년동기보다 150억엔도 줄어 경상이익이 37.1% 감소한 129억엔에 머물렀다.

## 미·영 항공사, PC로 예약 서비스

미국과 영국 항공사는 우수 승객을 대상으로 개인용 PC를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최근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Priority Travel Works, 영국에서는 Executive Travel Works라 명명되었으며 티켓구매에서부터 호텔 예약, 자동차대여, 여행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는 MS-윈도우즈 환경에서 운용되며 약 만명 정도의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Travel Works는 마우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시 사용자들에게 해당 항공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 마케팅 담당관인 W. Thomas Lagow씨는 이와 같은 서비스로 예약시간이 약 5분정도 단축되며 인건비 절감등 년 10억 달러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이미 CompuServe를 통해서 예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온라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 대만, 고층-홍콩-북경 항공노선 사상 첫 허용

대만과 홍콩의 항공당국은 중국도 일부 투자한 홍콩의 항공항공(드래건에어)이 대만 남부 고층을 출발해 홍콩 경유시 항공편 번호만 교체한 뒤 같은 비행기로 북경으로 비행하도록 사상 처음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항공항공 여객기들은 앞으로 매주 21편씩 고층-홍

콩-북경간을 비행할 수 있게됐다. 대만의 이 조치는 여태까지 대륙과의 '3불통' 정책에 입각, 금지해온 정식직항을 향한 일대 진전이다.

지금까지 대만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들은 홍콩 등 제3지에서 비행기 또는 항공사를 반드시 바꾸어 북경으로 비행해왔다. 대만 행정원(중앙정부) 교통부 민용항공국 채청언 국장은 대만과 홍콩 항공대표들이 10월 24일 대륙에서 항공협정 갱신을 위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륙위원회 가오구엔 부주임(차관)은 대만은 중국과의 항공기 직항을 위한 기술상의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직항을 앞으로 2~4년 뒤가 아니라 더 빨리 단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새 항공협정 초안은 지금까지 대만 중화항공과 홍콩 국제항공만 운항해온 대만-홍콩노선에 양측이 각각 1개 항공사씩을 추가 지정하고 편수도 늘려 매주 6편의 화물기와 1백21편의 여객기를 운항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새 협정은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되는 '97년 이후에도 유효한 것이어서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은 대만-중국간의 현실도 감안해 '간접직항'도 환영하고 있다.